

11. <보기>의 ㉠, ㉢가 사용된 예를 ㉠~㉣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sup>1)</sup>

< 보 기 >

선생님: 여러분이 헛갈려 하는 것들 중 ㉠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는 명사형 어미 ‘-(으)ㄴ’, ‘-기’와 ㉢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음’, ‘-기’가 있어요. 전자는 용언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전자가 결합해 활용된 용언은 서술하는 기능이 유지되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 세상은 홀로 ㉠ 살기가 어렵다.
- 형은 충분히 ㉢ 잡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 날씨가 더워 시원한 ㉢ 얼음이 필요하다.
- 우리에게 건전한 ㉢ 놀이 문화가 필요하다.
- 이곳은 풍경이 매우 ㉢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 |           |         |
|-----------|---------|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11. <보기>의 ㉠~㉣에 대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서술어는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의미	예문
살다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바람 때문에 불씨가 다시 ㉠ <u>살았다</u> .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	이 한 구절로 글이 ㉢ <u>살았다</u> .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그는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 <u>살았다</u> .
놀다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아니하다.	그는 잠시 일손을 ㉢ <u>놀았다</u> .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	형은 책을 책상 위에 ㉣ <u>놀았다</u> .

- ① ㉠은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군.
- ② ㉢은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③ ㉣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④ ㉢은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군.
- ⑤ ㉣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군.

1) 2017년 3월 시행, 2017학년도 고3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1 ~ 15번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인 것은?

< 보 기 >

체 「의존 명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체 「의존 명사」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째 「접사」

‘그대로’, 또는 ‘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① 사과를 껍질째로 먹었다.
- ② 나는 앓은 체로 잠이 들었다.
- ③ 그녀는 혼자 푹푹한 체를 한다.
- ④ 사나운 멧돼지를 산 째로 잡았다.
- ⑤ 꿈이 다가오자 그는 죽은 체를 했다.

[14 ~ 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세기 국어의 모음 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 한 형태소 내의 모음들을 살펴보면 ‘ㅏ, ㅑ, ㅓ’ 등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ㅕ, ㅗ, ㅛ’ 등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렸다. 중성 모음 ‘ㅣ’는 양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고, 음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가 형성되거나 체언에 조사가 연결될 때,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도 조사나 어미의 첫 모음은 그에 선행하는 모음과 같은 성질의 모음이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그에 선행하는 명사의 모음에 따라 ‘을/을, 를/를’ 중 하나가 선택되었고, ‘-은/-은’, ‘-음/-음’, ㉠ ‘-아/-어’와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선택되었다. 다만, 조사 ‘도’, ‘와/과’나 어미 ‘-고’, ‘-더-’ 등은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16세기부터 모음 조화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의 소실과 관계가 있다.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가 소실되면서 주로 ‘-’에 합류하였다. 첫째 음절에서의 ‘..’는 여전히 양성 모음이었으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 대신 음성 모음인 ‘-’가 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체언에 연결되는 ‘은/은’, ‘을/을’, ‘의/의’ 등의 조사는 점차 ‘은’, ‘을’, ‘의’ 등으로 통일되었고, 모음 조화를 지키던 ‘사슴’과 같은 단어들은 ‘사슴’과 같이 모음 조화를 어기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후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의 ‘..’가 주로 ‘ㅏ’에 합류하면서 ‘..’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국어의 모음 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음 조화가 약화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출렁출렁’, ‘출렁출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나 ㉢ 일부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4. ㉠과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

	15세기 국어		현대 국어	
	용언 어간	활용형	용언 어간	활용형
㉠	알-	아라	알-	알아
㉡	먹-	머거	먹-	먹어
㉢	씨오-	씨와	깨우-	깨워
㉣	쁘-	뼈	쓰-	써
㉤	꺾꺾-	꺾꺾야	가득하-	가득하여

15.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겨스레 소음 둔 오술 닙디 아니 호고 녀르메 서늘흔 디 가디 아니 흐며 흐르 쫘 두 호브로써 죽을 밍굴오 소곰과 느물 흘 먹디 아니 흐더라

- 『내훈』 (1447년)에서 -

[현대어 풀이]

겨울에 숨 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름에 서늘한 데 가지 아니하며 하루 쌀 두 홉으로써 죽을 만들고 소곰과 나물을 먹지 아니하더라.

(나)

타락과 초와 장과 소곰과 계즈 꺾와 파과 마늘과 부척와 기름과 댓무우과 외와 가지 등 여러가지 느물과 둥기 알과

- 『박통사언해』 (1677년)에서 -

[현대어 풀이]

타락과 식초와 장과 소곰과 겨자 가루와 파와 마늘과 부추와 기름과 당근과 오이와 가지 등 여러 가지 나물과 닭의 알과

-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슬'과 '흐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가)의 '오술'과 '죽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용언 어간에 '-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흐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17세기에는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둘째 음절의 '·'가 'ㅡ'로 변화하였음을 (가)의 '느물'과 (나)의 '느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

<보기 1>

[구개음화]

교체 현상의 하나로,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각각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이 되는 현상.

<보기 2>

- 나는 벽에 ㉠ 붙인 게시물을 떼었다.
-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 날낱이 밝혔다.
- 그녀는 평생 ㉢ 발이랑을 일구며 살았다.
- 그의 말소리는 소음에 ㉣ 묻히고 말았다.
- 그는 겨울에도 방에서 ㉤ 흙이불을 덮고 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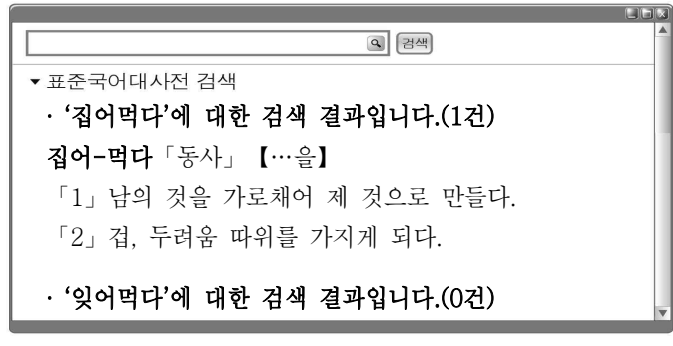
- ㉠의 '붙-'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의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낱'의 받침 'ㅌ'은 [ㅊ]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 ㉢의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발'의 'ㅌ'은 [ㅊ]으로 발음된다.
- ㉣의 '묻-'은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은 [ㅊ]으로 발음된다.
- ㉤의 '흙-'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흙-'의 받침 'ㅌ'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12.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추가로 조사한 자료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우

유형	특징
본용언 + 본용언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한다.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띄어 쓴다.
본용언 + 보조용언	·앞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고, 뒤의 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합성 동사	·국어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반드시 붙여 쓴다.

(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



〈보기〉

- 온순했던 청년들은 지레 겁을 ㉠ 집어먹었다.
- 나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도 ㉡ 잇어 먹었다.
- 그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 집어먹었다.
- 그는 굶주림에 지쳐 땅 위에 버려진 빵을 ㉣ 집어 먹었다.
- 그들은 서로 만나기로 했던 사실을 새까맣게 ㉤ 잇어먹었다.

- ① ㉠은 국어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 동사이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 ② ㉡은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 ③ ㉢은 각각의 용언이 모두 주어인 '그는'과 호응하고 있으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 ④ ㉣은 두 용언 사이에 '허겁지겁'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 ⑤ ㉤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써야 하지만 붙여 쓴 것을 허용한 것이겠군.

13. <보기>는 '학습 활동'에 대해 짝토론을 한 것이다. ㉠ ~ ㉤에 알맞은 말을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학습 활동] 다음 문장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자.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그녀가 알려 줬다.

〈보기〉

- 학생 1:** 어제 보았던 거꾸로 수업 동영상 강의에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했지?
- 학생 2:** 그래. 그리고 어떤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려면 그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먼저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는 단어를 찾아보자. 음……. '알려 줬다'와 '받았음' 이렇게 두 개인가?
- 학생 1:** 아니야. '아끼던'도 서술 기능이 있잖아.
- 학생 2:** 그렇구나. 그러면 그중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알려 줬다'이고, 그것의 주어는 ( ㉠ )이겠지.
- 학생 1:** 맞아. 그럼 '받았음'의 주어는 ( ㉡ )이겠지?
- 학생 2:** 응. 명사절이 문장 전체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안겨 있는 거지.
- 학생 1:** 명사절 외에 관형절도 있잖아. 그러면 이 관형절의 주어는 ( ㉢ )이겠지.
- 학생 2:** 그래. 국어의 안은문장은 이렇게 여러 개의 안긴문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 |   |     |     |     |
|---|-----|-----|-----|
|   | ㉠   | ㉡   | ㉢   |
| ① | 그녀가 | 제자가 | 그가  |
| ② | 그녀가 | 그가  | 제자가 |
| ③ | 그가  | 그녀가 | 제자가 |
| ④ | 그가  | 제자가 | 그녀가 |
| ⑤ | 제자가 | 그녀가 | 그가  |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14 ~ 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높임법은 높임이나 낮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법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서'에 의해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기도 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도 주로 '-시-'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유사하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드리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 등을 통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으며, '-습-'은 앞뒤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습-, -즙-, -술-, -술-, -줄-'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 국어와 같이 특수한 어휘들이 사용되어 객체 높임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에 의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종결 표현이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잇-'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仁義之兵(인의지병)을 遼左(요좌) | ㉠ 깃스븐니  
[현대어 풀이] 인의의 군대를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니
- 聖孫(성손)이 ㉡ 一怒(일노)하시니 六百年(육백년) 天下(천하) | 洛陽(낙양)에 ㉢ 올랐니이다  
[현대어 풀이] 성손(무왕)이 한번 노하시니 육백 년의 천하가 낙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 聖宗(성종)을 ㉣ 뵈서 九泉(구천)에 가려 하시니  
[현대어 풀이] 성스러운 어른을 모시고 저승에 가려 하시니
- 하늘히 駙馬(부마) 달애샤 두 孔雀(공작)일 ㉤ 그리시니이다  
[현대어 풀이] 하늘이 부마를 달래서 두 공작을 그리신 것입니다.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 ①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선어말 어미 '-슬-'을 사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聖孫(성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청자를 높이기 위해 '-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선어말 어미 '-시-'와 '-이-'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의 주체와 청자인 상대방을 모두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윗글과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사용된 높임의 양상을 바르게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4)

〈보기 1〉

주체 높임에는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개인적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해당 인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보기 2〉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직접 높임	간접 높임		
①	×	○	○	높임
②	×	○	×	낮춤
③	○	×	○	높임
④	×	○	×	낮춤
⑤	○	×	○	낮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5)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는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4) 2017년 4월 시행, 2017학년도 고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1 ~ 15번  
5) 2017년 6월 시행,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1~15번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 하는데,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의어와 하의어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이를테면 '구기'는 '스포츠'와의 관계 속에서 하의어가 되지만, '축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의어가 된다. 그런데 '구기'의 하의어에는 '축구' 외에 '야구', '농구' 등이 더 있다. 이때 상의어인 '구기'에 대해 하의어 '축구', '야구', '농구' 등은 같은 계층에 있어 이들을 상의어 '구기'의 공하의어라 하며, 이들 공하의어 사이에는 ㉠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곧 어떤 구기가 '축구'이면서 동시에 '야구'나 '농구'일 수는 없다.

한편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일례로 어떤 새가 '장끼'이면 그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를 이어받으므로 '꿩'을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새가 '꿩'이라 해서 그것이 꼭 '장끼'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의어는 하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한다. 이를 '[ ]'로 표현하는 의미 자질로 설명하면,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 자질들을 가지면서 [수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가져, 결국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보다 의미 자질 개수가 많다. 곧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폈듯이 '구기'의 공하의어가 여러 개인 것과 달리, '꿩'의 공하의어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 '장끼'와 '까투리' 둘뿐이다. '구기'의 공하의어인 '축구', '야구' 등과 마찬가지로 '장끼', '까투리'는 '꿩'의 공하의어로서 비양립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장끼'와 '까투리'의 경우, '장끼'가 아닌 것은 곧 '까투리'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 그 공하의어들은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악기(樂器)[-끼] [명]**  
[음악]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눈다.

**타악기(打樂器)[타:-끼] [명]**  
[음악]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팀파니, 실로폰, 북이나 심벌즈 따위이다.

- ①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겠군.
- ②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이므로 [두드림]을 의미 자질 중 하나로 갖겠군.
- ③ '기구'는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악기'는 '북'을 의미적으로 함의하겠군.
- ④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기구'의 하의어이지만, '기구'의 공하의어는 아니겠군.
- ⑤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이므로 모두 '악기'의 상의어 '기구'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겠군.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9)</sup>

**선생님** :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성의 궤도를 도는 인공적 물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생긴 거겠죠?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생 1** : ‘인공’과 ‘위성’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 :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학생 2** :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닌가요?

**선생님** :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논밭,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건널목, 노립수, 섞어찌개’와 같은 경우도 있고 ‘색색시’처럼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 3** :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합성 명사들을 보니 뒤의 말이 모두 명사네요?

**선생님** :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답니다.

**학생 4**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강’이라는 말은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또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컴시인’은 ‘컴퓨터’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11. <보기>의 ㄱ~ㄴ 중 밑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선생님’을 줄여서 ‘쌤’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ㄴ. ‘개-’와 ‘살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ㄷ. ‘사뵈’와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ㄹ. ‘점잖다’라는 형용사로부터 ‘점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ㄹ.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① ㄱ, ㄹ                      ② ㄷ, ㄴ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ㄴ

9) 2017년 9월 시행,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1~15번

12.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② 언니는 가구를 전부 새것으로 바꿨다.  
 ③ 아이가 요사이에 몰라보게 훌쩍 컸다.  
 ④ 오늘날에는 교육에서 창의성이 중시된다.  
 ⑤ 나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13.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 ㉠~㉣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수빈, 나경, 세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수빈 : 나경아, 머리핀 못 보던 거네. 예쁘다.  
 나경 : 고마워. ㉠ 우리 엄마가 얼마 전 새로 생긴 선물 가게에서 사 주셨어.  
 세은 : 너희 어머니 참 자상하시네. 나도 그런 머리핀 하나 사고 싶은데 ㉡ 우리 셋이 지금 사러 갈까?  
 수빈 :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 우리 집에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세은 :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 우리끼리 가지, 똘.  
 나경 : 그래, 수빈아. 다음엔 꼭 ㉤ 우리 다 같이 가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1> —

㉠ 설명 의문문과 관정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 <보 기2> —

㉠ 므슴 마를 니르느 뇨 [무슨 말을 말하느냐?]  
 ㉡ 저으며 늘구미 잇느 녀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 虛空과 벼를 보더시니 [허공과 별을 보시더니]  
 ㉣ 世尊하 내 堂中에 이셔 문져 如來 보습고 [세존이시여,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뵈고]

- ① ㉠의 ‘니르 느 뇨’와 ㉡의 ‘잇느 녀’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② ㉠의 ‘마를 ’과 ㉢의 ‘벼를’을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의 ‘世尊하’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의 ‘보더시니’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의 ‘보습 고’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15.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0)

— <보 기> —

- ㉠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 ㉡ 그가 집에 갔다. /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 ㉢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 ㉣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
- ㉤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군.
-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③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리-’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④ ㉣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 ⑤ ㉤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11.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1)

- ㉠ 드디어 나도 일을 끝냈다.
- ㉡ 벌써 바깥이 칠혹같이 어둡다.
- ㉢ 신입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 ㉣ 새 컴퓨터가 순식간에 고물이 되었다.

- ① ㉠과 ㉡에서 주어진 명사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 ② ㉠과 ㉡에서 격조사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 주고 있다.
- ③ ㉠과 ㉡에서 주어진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이다.
- ④ ㉠과 ㉡에서 주어진 체언 구실을 하는 구에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 ⑤ ㉢에서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서술어의 영향으로 주어 가 두 번 쓰였다.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10) 2017년 9월 시행,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1~15번  
11) 2017년 10월 시행, 2017학년도 10월 고3 학력평가 11~15번

12. <보기>를 참조하여 단어의 발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연음은 앞 음절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 발음되는 현상이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곧바로 연음이 일어나지만, ‘ㄱ, ㄷ, ㄱ, ㄷ, ㄱ’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홀웃[호돋]’처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 연음이 일어난다.

- ① ‘발은소리’는 용언의 활용형인 ‘발은’과 명사 ‘소리’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바든소리]로 발음한다.
- ② ‘날’에 조사 ‘으로’가 붙으면 [나트로]라고 발음하지만, 어근 ‘알’이 붙으면 [나달]로 발음한다.
- ③ ‘아버금니’는 어근 ‘앞’과 ‘어금니’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아버금니]로 발음한다.
- ④ ‘겉웃음’은 ‘웃-’이 어근이고, ‘-음’이 접사이므로 [거두슴]으로 발음한다.
- ⑤ ‘밭 ’ 뒤에 조사 ‘을’이 붙으면 연음되어 [바뜰]로 발음한다.

13.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어떠한 두 사건을 ‘-다가’나 ‘-아서/-어서’에 의해 연결할 때, 두 사건의 시제가 문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두 사건의 의미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지 (가)~(라)에서 살펴봅시다.

- (가) 찌개를 먹다가 허를 데었다.
- (나) 찌개를 끓였다가 다시 식혔다.
- (다) 그는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 (라) 내가 문을 쾅 닫아서 동생이 잠을 잤다.

- ① (가)와 (나)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의 사건이 모두 과거에 일어났지만, (가)에는 (나)와 달리 ‘-다가’로 연결된 앞 절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났어.
- ② (가)와 (다)에서는 뒤 절의 시제가 과거임을 확인해야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
- ③ (가)와 (라)에서는 모든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는데도,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어.
- ④ (나)와 (라)에서는 ‘-다가’와 ‘-아서/-어서’가 쓰인 앞 절의 사건이 끝난 후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 ⑤ (다)와 (라)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이 모두 ‘-아서/-어서’로 이어졌지만, (라)는 (다)와 달리 앞 절의 사건이 뒤 절의 사건의 원인이나 이유로 이해될 수 있어.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국어에서 사동 표현은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붙거나, ‘-게 하다’에 의해 만들어진다.

서술어가 형용사나 자동사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 도입된다. 이는 주동문 (㉠)과 사동문 (㉡)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 (㉠) 얼음이 녹는다.
- (㉡) 아이들이 얼음을 녹인다.

한편 서술어가 타동사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며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 도입된다. 이는 주동문 (㉢)과 사동문 (㉣)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 (㉢) 영희가 책을 읽었다.
- (㉣) 선생님께서 영희에게 책을 읽히셨다.

한편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가 붙은 사동사에 의한 사동을 단형 사동이라 하고, ‘-게 하다’에 의한 사동을 장형 사동이라 한다. 사동을 일으키는 주체가 사동 행위를 받는 대상의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를 직접 사동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접 사동이라 하는데, 단형 사동은 맥락에 따라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으나 장형 사동은 간접 사동의 해석만을 허용한다.

15세기 국어에서 사동 범주는 주동문의 동사나 형용사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기-, -오-/우-, -호-/후-, -으-/으-’가 붙어서 만들어지거나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게 하다’에 의해 만들어졌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얼음 위에서 팽이가 돈다.
- ㉡ 지원이가 그 일을 맡았다.
- ㉢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 ㉣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게 하였다.

- ① ㉠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의 주어는 목적어로 바뀔 것이다.
- ② ㉠을 ‘아이들이’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뀔 것이다.
- ③ ㉡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의 주어는 부사어로 바뀔 것이다.
- ④ ㉡을 ‘선생님께서’를 주어로 삼는 단형 사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것이다.
- ⑤ ㉢은 ㉣과 달리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2)

< 보 기 >

- [15세기 국어] ㉠ 얼우시고  
[현대 국어] 강에 배가 없으므로 (강물을) 얼리시고
- [15세기 국어] 목수물 ㉡ 일케 햏야노  
[현대 국어] 목숨을 잃게 하였는가
- [15세기 국어] 比丘란 노피 ㉢ 안치시고  
[현대 국어] 비구는 높이 앉히시고
- [15세기 국어] 나랏 小民을 ㉣ 사르시리잇가  
[현대 국어]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시겠습니까
- [15세기 국어] 투구 아니 ㉤ 밧기시면  
[현대 국어] 투구를 아니 벗기시면

- ① ㉠은 동일한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다른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② ㉡은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15세기 국어의 ‘-게 햏다’가 쓰인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③ ㉢은 15세기 국어에서 어근과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를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는군.
- ④ ㉣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사동 접미사가 15세기 국어에서 쓰인 양상을 보여 주는군.
- ⑤ ㉤은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어근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 접미사가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는군.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13)

국어의 단어들은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 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엇던 사람고 (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12) 2017년 10월 시행, 2017학년도 10월 고3 학력평가 11~15면  
13) 2018학년도 수능 국어 11번~15번(문법)

11.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1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뇨 (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이 누고 (네 스승이 누구인가?)
- 남든 누구 (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 (이 벗은 누구인가?)
- 저 혼 벗은 누고고 (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13.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②	· 함박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펑펑’이 부사어로 쓰였군.
③	· 그는 너무 현 차를 한 대 샀다.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④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⑤	㉢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는 비분임을 나타냄.

14.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 흙일 → [홍닐]
- ㉡ 닳는 → [달른]
- ㉢ 발야구 → [발라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15. <보기>는 사전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개정 전	개정 후
㉠	<b>굽다</b> ㉠ 「1」 손톱이나 뽕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b>굽다</b> ㉠ 「1」 손톱이나 뽕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 : 「9」, …… 「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
㉡	<b>김-밤</b> [김 : 밤] ㉡ ……	<b>김-밤</b> [김 : 밤/김 : 뽕] ㉡ ……
㉢	<b>냄새</b>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낚새. <b>내음</b> ㉢ '냄새'의 방언(경상).	<b>냄새</b>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낚새. <b>내음</b> ㉢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	<b>태양-계</b>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9개의 행성, ……	<b>태양-계</b>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8개의 행성, ……
㉤	(표제어 없음)	<b>스마트-폰</b> ㉤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 사전의 개정 내용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임.

- ① ㉠ :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었군.
- ② ㉡ : 표준 발음이 추가로 인정되어 기존의 표준 발음과 함께 제시되었군.
- ③ ㉢ : 방언이었던 단어가 표준어의 지위를 얻고 뜻풀이도 새롭게 제시되었군.
- ④ ㉣ :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여 뜻풀이 일부가 갱신되었군.
- ⑤ ㉤ : 새로운 문물을 지칭하는 신어가 표제어로 추가되었군.

회원 가입 / 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http://www.facebook.com/LegendStudy)

# 정답

2017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2017년 3월 시행)
11.④ 12.② 13.① 14.⑤ 15.④
2017학년도 4월 고3 모의고사 (2017년 4월 시행)
11.④ 12.③ 13.① 14.④ 15.①
2018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2016년 6월 시행)
11.③ 12.① 13.① 14.② 15.④
2017학년도 7월 고3 모의고사 (2017년 7월 시행)
11.① 12.② 13.④ 14.③ 15.⑤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2017년 9월 시행)
11.② 12.① 13.③ 14.⑤ 15.①
2017학년도 10월 고3 모의고사 (2017년 10월 시행)
11.④ 12.① 13.① 14.⑤ 15.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7년 11월 23일 시행)
11.④ 12.① 13.③ 14.② 15.①

BY-NC-N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http://www.facebook.com/LegendStudy)

질문, 오류제보, 자료요청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레전드스터디 닷컴